

金冠塚 被葬者の 性格 再考

尹 相 憲*

목 차

- I. 序言
- II. 金冠塚의 規模
- III. 被葬者の 地位
- IV. 被葬者の 性別
 - 1. 性別 判別의 重要性
 - 2. 被葬者の 性別 檢討
 - 3. 統計分析
- V. 結語

* 國立中央博物館

國文要約

金冠塚은 韓半島에서 처음으로 金冠이 발견된 무덤이나 단 4일 만에 非專門家에 의해 수습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國立中央博物館에서는 2015년에 發掘을 하였고 積石 및 木槨 내부 構造와 規模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尙斯智王刀’라는 銘文이 있는 大刀 破편을 發見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921년의 조사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 被葬者에 대해 오히려 많은 論難이 생겼다. 여기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金冠塚의 封墳 規模로 被葬者の 地位를 推定한 뒤, 統計技法을 활용하여 性別을 判別하여 被葬者の 性格을 推定하였다.

金冠塚에서는 護石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發掘된 다른 積石木槨墳의 護石과 積石部 길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金冠塚 護石의 長軸 길이를 45m로 推定하였다. 이를 封墳 外形을 통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規模가 3군에 속하며 麻立干(王)의 무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被葬者の 性別은 金冠塚의 被葬者와 ‘尙斯智王’의 關係를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朝鮮總督府에서 발간한 金冠塚 報告書에 太環耳飾을 着裝한 것으로 기록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女性으로 보아 왔으나, 筆者는 金冠塚의 帶冠 부속장식이 細環垂飾인 점에 주목하여 太環耳飾의 着裝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耳飾을 除外하고 性別 문제를 검토하는 방법을 취했다. 즉 新羅 前期의 주요 무덤 71기에 대해 性別을 나타내는 副葬品-帶冠, 垂飾, 帽冠, 頸飾, 大刀(着裝), 甲冑, 鐵鏃, 大刀(副葬), 鐵矛, 馬具의 出土樣相을 정리하였고, 統計技法(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金冠塚의 被葬者는 男性(細環耳飾 着裝)으로 推定하는 것이 統計的으로 適合하였다. 아울러 ‘尙斯智王’이 새겨진 大刀의 出土樣相으로 보아 ‘尙斯智王’은 바로 金冠塚의 被葬者와 同一 人物이라고 推定하였다. 封墳의 規模로 보아 金冠塚은 麻立干의 陵이 아니므로 ‘尙斯智王’은 麻立干 중에 한 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尙斯智王’은 冷水里碑에 나오는 ‘七王’과 같은 6部の 最高位層에 속하는 인물로 推定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鳳凰臺의 陪塚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麻立干과 姻戚 關係에 있는 喙部和 沙喙部 출신의 干支級 地位의 인물로 推定하였다.

■ 主題語 ■

金冠塚, 尙斯智王, 封墳規模, 細環垂飾, 帽冠,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6部, 干支

I. 序言

金冠塚은 韓半島에서 처음으로 金冠이 발견된 무덤이다. 지금으로부터 95년 전의 일인데 단 4일 만에 非專門家에 의해 盜掘되듯이 수습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國立中央博物館에서는 2015년에 發掘을 하였고, 積石 및 木槨 내부 構造와 規模를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尙斯智王刀’라는 銘文이 있는 大刀 片편을 發掘하여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2014년에 ‘尙斯智王’이라는 銘文이 발견된 뒤 金冠塚의 被葬者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견해를 발표하였고, 筆者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특히 金冠塚의 封墳 規模도 被葬者의 性格을 밝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여, 金冠塚의 發掘에서 護石의 흔적이 찾아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護石은 남아 있지 않았다. 한편, 筆者는 金冠塚의 被葬者가 太環耳飾을 매단 반면 大刀를 着裝하지 않아 女性이라고 생각하였는데, 金冠의 垂飾이 細環이라는 咸舜燮의 지적¹⁾을 듣고 被葬者의 性別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이는 金冠塚이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와 慶州普通學校長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 등 非專門家에 의해 유물이 수습되어 그 出土 樣相도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²⁾ 이 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글이다.

먼저 金冠塚의 規模를 바탕으로 被葬者의 地位를 推定하고자 한다. 비록 護石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積石部の 規模와 형태를 완전히 찾았기에 이를 다른 積石木槨墳의 發掘 사례와 비교하여 護石(封墳)의 規模를 推定하겠다. 이어서 封墳의 規模로 볼 때 金冠塚이 新羅 前期 무덤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被葬者의 性別 문제이다. 被葬者의 性別은 金冠塚의 被葬者와 ‘尙斯智王’의 關係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性別을 判別하기 위해 앞서 불명확하다고 생각한 耳飾의 着裝을 除外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취했다. 즉 耳飾 외에 性別을 나타내는 裝身具와 副葬品들을 뽑아내어 新羅 前期의 積石木槨墳 71기의 出土樣相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명확하게 결론을 낼 수 없었다. 그것은 金冠塚의 出

1) 咸舜燮은 이외에 男性과 관련 있는 帽冠의 副葬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2) 朝鮮總督府가 펴낸 金冠塚 報告書에는 ‘發掘시 매우 혼잡하여 유물 출토 상태를 정확히 관찰할 수 없었고 모로가와 오사카 긴타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왕왕 있고, 출토상태를 알 수 없는 유물이 적지 않아 유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濱田耕作·梅原末治 1924:15). 또한, 金大煥(2014b)도 朝鮮總督府의 報告書 작성과정을 분석한 글에서 유물 출토 상태는 여러 사람의 정보를 토대로 정리되었고, 여러 도면이 등장하며 출토 위치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고 지적하였다.

土品이 男性的인 부분과 女性的인 부분을 나타내는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統計技法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여 관련 副葬品의 出土 樣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副葬品이 性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金冠塚의 性別을 統計的으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II. 金冠塚의 規模

金冠塚의 再發掘 결과 護石 등 外形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얻지 못했다. 護石이 대부분 破壞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덤의 積石部和 木槨 등 중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封土 規模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사된 내부 構造를 기존에 發掘된 무덤과 비교하여 規模를 推定하고자 한다.

金冠塚의 積石部는 東쪽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으나 나머지 부분이 잘 남아 있어 전체 크기의 推定이 가능하다. 東西 22.2m, 南北 20.4m로 東西 방향이 조금 크다(그림 1). 또한 木槨 크기는 外槨이 東西 6.4m, 南北 4.2m이며, 內槨은 東西 5.2m, 南北 2.36m이다. 이를 기존에 發掘된 지름 12.5m 이상 무덤(1~5군, III장 참조)의 조사 내용과 비교해보자. 積石部和 護石이 모두 조사된 경우는 10기이다(표 1). 98호분(皇南大塚)을 除外하면 護石의 長軸 길이와 積石의 長軸 길이에 일정한 정형성이 보인다. 즉 護石과 積石部 길이의 비가 1.89~2.17로 대체로 護石 길이는 積石部 길이의 약 두 배이다.³⁾

3) 다만 皇南大塚 南墳은 2.79배, 北墳은 3.17배로 이를 따르지 않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초대형분의 특성상 封墳을 크게 하는데 돌보다는 흙을 사용하는 것이 쉬웠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표 1. 護石 지름과 積石部 지름 비교

연 번	무덤명	護石지름 (長軸)	護石 /積石	積石部		外槨(主槨)		內槨	
				長軸	短軸	길이	너비	길이	너비
1	98호(皇南大塚) 南墳	76	2.79	27.2	19.7	6.5	4.1	4.7	2.3
2	98호(皇南大塚) 北墳	76	3.17	24(推定)	?	6.8	4.6	4.3	2.4
3	155호(天馬塚)	49.6	1.98	25	-	6.6	4.2	4.5	1.8
4	128호(金冠塚)	?	-	22.2	20.4	6.4	4.2	5.2	2.36
5	129호(瑞鳳塚)	36	1.98	17.4	10.2				
6	34-1(쪽샘)	22.5	2.08	10.8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瑞鳳塚은 小泉顯夫(1927)의 약보고 기준임. 쪽샘은 主副槨式 경우 主副槨의 積石部 길이를 합산하였음.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14) 			
7	33-2(쪽샘)	21.2	1.89	11.2	3.8				
8	34-2(쪽샘)	17.8	1.98	9.0	3.5				
9	34-3(쪽샘)	17.6	2.07	8.5	2.9				
10	F2(쪽샘)	15.0	2.14	7.0	4.0				

결국 積石部 長軸 길이의 약 두 배를 護石 規模로 推定한다면 金冠塚의 護石 長軸 길이는 44.4m(≒45m) 내외로 推定할 수 있다. 護石 지름을 약 45m로 推定하면 金冠塚의 護石 東쪽 끝은 도로의 중앙에 있게 되며, 鳳凰臺 및 瑞鳳塚과 상당히 가깝게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특히 鳳凰臺와는 거의 접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日帝強占期 金冠塚의 發掘報告書에도 封土 지름을 45m(150尺)로 推定한 바 있다. 즉 古墳의 현상을 설명한 부분에서 ‘나이 든 노인들에 의하면 金冠塚이 鳳凰臺의 끝자락과 접하고 있어 그 사이를 지나갈 때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가야 했는데, 1912년에 新道路를 만들면서 이 부분이 깎여나갔다’고 하였다(濱田耕作·梅原末治 1924: 3). 즉 20세기 초에는 두 무덤의 끝자락이 살짝 접하고 있었다는 기록이다. 이 報告書에서도 鳳凰臺와의 접점이 도로 중앙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金冠塚의 저부 지름을 逆算하여 150尺(45m)으로 推定하였다. 이상의 검토 결과 金冠塚의 護石 기준 封墳의 東西 長軸 길이를 45m로 推定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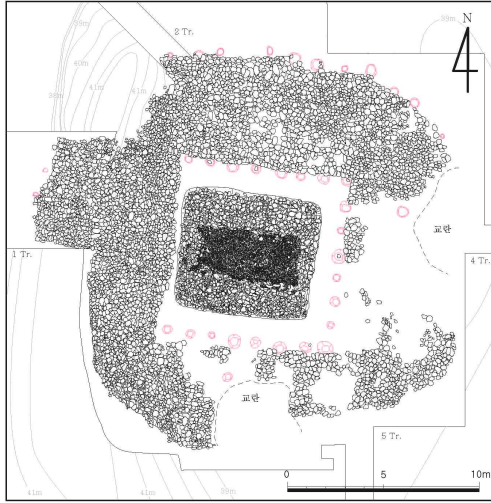


그림 1. 金冠塚 平面圖(國立中央博物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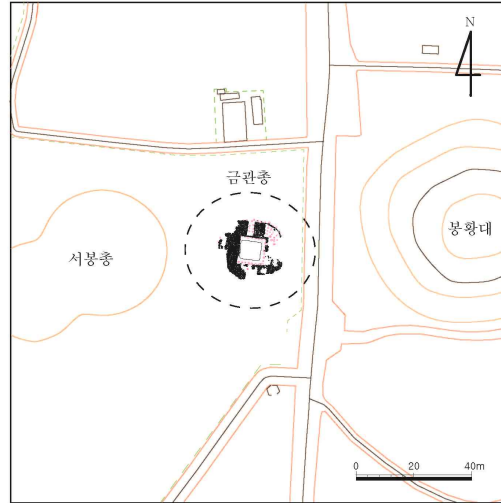


그림 2. 鳳凰臺, 瑞鳳塚과의 關係

III. 被葬者の 地位

筆者는 이전 글에서 外形으로 新羅 前中期의 王陵을 推定하는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尹相憲 2014).⁴⁾ 이 장에서는 지난 연구를 바탕으로 II장에서 推定한 金冠塚의 規模로부터 被葬者の 地位를 推定하겠다.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난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外形을 통한 연구는 몇 가지 위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發掘이 되지 않은 무덤은 현재의 封墳이 과거 조성될 때의 封墳에서 얼마나 변형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未發掘 무덤에 대해 이 무덤이 王陵인지 아닌지, 또는 어떤 性格을 가졌는지를 推定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大型 무덤은 新羅 최고의 문물이 집약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앞으로 大型 무덤의 發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연구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무덤 조성 후의 遺蹟 形成 過程의 이해도 중요하다. 新羅 前期 무덤 중에 規模가 큰 것은 두꺼운 護石과 단단한 封土가 있으므로 변형을 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封土는 삭평되었더라도 封墳 基底部 외곽의 護石이 어느 정도 平面

4) ‘中期’는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3/4분기까지로 단각고배와 대부병의 사용, 인화문 출현, 그리고 석실묘의 성행으로 규정한 시기이다.

形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封墳의 平面形態와 크기는 자료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⁵⁾

따라서 封墳의 크기는 높이를 除外하고 護石의 長軸 길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筆者는 護石이 무덤 조영 당시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최근 積石木槨墳 封土 조영시 護石을 덮었다는 자료가 보고되고 있어⁶⁾ 護石의 規模가 실제 封土의 크기였는지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護石을 흙으로 덮었다고 하더라도 護石이 封土의 거의 외곽을 형성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封土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존의 報告書에서 원래 封土 범위와 흘러내려 쌓인 것을 구분하여 기록해놓은 경우가 거의 없어 상호 비교가 어려우므로, 護石의 크기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난 글에서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前期 무덤 총 78기의 크기를 수집하였고, 이를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6개의 集團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1군)은 직경 65m이상의 超大型으로 125호분(鳳凰臺), 98호(皇南大塚) 南墳·北墳, 130호분(西鳳凰臺)이다(표 2). 두 번째 그룹(2군)은 47.5m이상 65m미만으로 119호 中墳

표 2 月城北古墳群 封土 크기 비교(尹相憲 2014)

무덤명	그룹	長軸(m)	西岳洞古墳群	
125호(鳳凰臺)	1	82.3	西岳4호	62.9
98호(南墳)	1	76.0		
98호(北墳)	1	76.0		
130호(西鳳凰臺)	1	74.6		
90호(北墳)	2	56.5		
106호(傳 味鄒王陵)	2	56.1		
90호(南墳)	2	54.3		
134호(北墳)	2	54.1		
119호(西墳)	2	53.7		
99호	2	51.2		
105호	2	51.0	西岳3호	50.3
155호(天馬塚)	2	49.6		
119호(中墳)	2	48.9		
129호(瑞鳳塚 北)	3	?	西岳2호	46.2
97호(西墳)	3	45.5	西岳1호	46.0
128호(金冠塚)	3	45	武烈王陵	34.1
100호(劍塚)	3	44.3		
134호(南墳)	3	44.0		
102호	3	43.5		
144호	3	43.3		
119호(東墳)	3	42.3		
39호	3	41.2		
93호(東墳)	3	40.0		
135호	3	38.8		
143호(北墳)	3	38.7		
101호	3	38.3		
97호(東墳)	3	38.0		
95호	3	37.6		
103호	3	36.9		
143호(南墳)	3	36.5		
五陵1	3	35.3		
五陵3	3	35.3		
93호(西墳)	3	34.1		
145호	3	33.3		
118호	3	33.3		

5) 연구 진행 중에 거의 대부분의 前期 積石木槨墳의 平面形態가 橢圓形임을 확인했는데, 長軸의 방향도 일반적인 木槨의 長軸방향인 東西방향이 다수임을 발견하였다. 이 점은 지금의 封墳 外形이 조성 당시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傍證한다.

6)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14, 「V. 조사성과」,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遺蹟Ⅳ』 - A·C~F地區 分布調査 報告書.

(48.9m)에서 90호 北墳(56.5m)까지로 총 9기이다. 3군은 32.5m이상, 47.5m미만으로 총 22기이다. 4군은 22.5m 이상으로 총 8기이다. 5군과 6군은 12.5m를 경계로 한다.

연구 진행에 앞서 두 가지 전제를 세우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 번째는 新羅 무덤의 平面形은 橢圓形에서 圓形으로 변하며, 두 번째는 新羅의 王陵은 후대로 갈수록 크기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平面形態는 前期 무덤은 長軸/短軸의 비율이 106% 이상인 橢圓形이며 中期 초기를 거쳐 그 이후는 圓形으로 변화함을 설명하였다. 王陵 크기의 축소 경향은 가장 확실한 무덤인 皇南大塚(5세기 전·중엽, 76m), 武烈王陵(661년, 34.1m), 興德王陵(827년, 20.7m)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前期의 王陵級 무덤은 月城北古墳群에 분포하며 法興王陵 이후(中期 이후)에는 慶州市내 외곽으로 이동한다는 점도 바탕에 깔고 진행하였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 王陵이 축소된다고 전제할 때 前期 王陵 크기의 하한이 얼마일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前期 王陵의 크기가 축소되지만 적어도 中期 初期의 王陵보다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였다. 예를 들면 中期의 王陵 중 가장 확실한 王陵인 武烈王陵(661년)의 지름이 34.1m인데, 前期 王陵의 크기는 前期보다 100년 이상 뒤에 조성된 武烈王陵보다는 클 것이라는 推定이다. 따라서 前期 직후의 무덤인 法興王陵, 眞興王陵 등과의 크기 비교가 필요하다. 西岳洞 古墳群 1~4호 무덤은 平面形이 橢圓形

에서 圓形으로 변하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慶州 외곽의 무덤 중에 가장 큰 무덤이다. 따라서 西岳洞 무덤을 法興王, 眞興王, 眞智王의 무덤으로 推定하고 前期 王陵의 크기 하한을 여기에 두었다. 결국 前期 무덤 중 가장 큰 무덤(1·2군)을 王(妃)陵의 후보로 추론하였다(표 2). 구체적으로 大型 合葬墳 3기(98호 皇南大塚, 90호, 134호), 超大型 무덤인 125호(鳳凰臺), 130호(西鳳凰臺), 그리고 106호(傳 味鄒王陵)·105호를 유력한 王(妃)陵으로 보았다. 만약 125호분과 130호분 중에 王妃陵이 있다면 차순위에서 1기의 王陵을 추가로 찾아야 하며 그 후보로 1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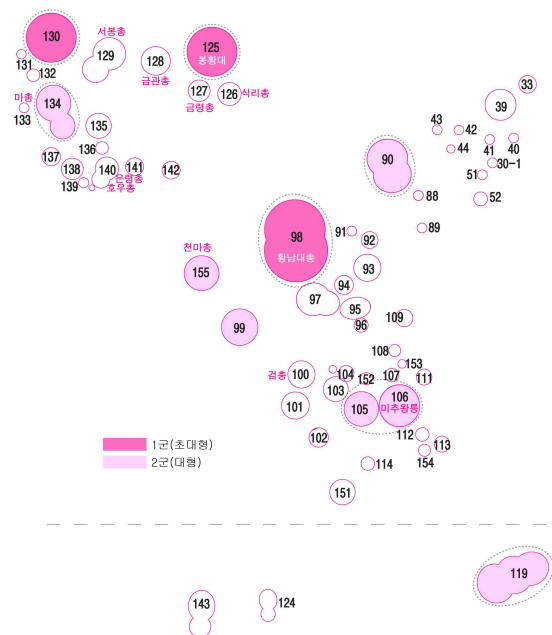


그림 3. 月城北古墳群 封土크기 비교와 王(妃)陵 推定 (尹相惠 2014)

분을 들었다(그림 3).

金冠塚은 護石의 長軸 방향의 지름이 약 45m로 3등급에 속한다. 결국 金冠塚은 王陵(麻立干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⁷⁾ 또한, 비록 金冠이 출토되었지만 金鈴塚(127호분), 瑞鳳塚(129호분), 天馬塚(155호분) 역시 王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IV. 被葬者の 性別

1. 性別 判別의 重要性

앞 장에서 金冠塚은 規模로 볼 때 王(麻立干)의 陵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럼 金冠塚에 묻힌 사람은 누구인가? 특히 木槨 안의 大刀에서 발견한 銘文인 ‘尒斯智王’은 金冠塚의 被葬者와 어떤 關係인가? 筆者는 金冠塚의 被葬者와 ‘尒斯智王’의 關係를 규명하는 것은 被葬者の 性別 判別과 밀접한 關係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被葬者の 性別에 따라 被葬者와 尒斯智王과의 關係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표 3. 性別에 따른 金冠塚 被葬者와 ‘尒斯智王’과의 關係

性別	尒斯智王과의 關係	地位(規模)	性格	비고
男性	被葬者 = 尒斯智王	王(麻立干) 아님	6部の 首長級	冷水里碑의 ‘七王’
女性	被葬者 ≠ 尒斯智王		尒斯智王과 깊은 關係	尒斯智王=鳳凰臺 被葬者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 金冠塚의 被葬者가 男性이라면 ‘尒斯智王’은 바로 金冠塚의 被葬者와 동일 인물이라고 推定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王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尒斯智王’은 奈勿王부터 智證王까지 6명의 麻立干 중에 한 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 ‘尒斯智王’은 冷水里碑에 나오는 ‘七王’과 같은 新羅 6部の 首長級에 속하는 사람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女性이라면 金冠塚의 被葬者는 ‘尒斯智王’이 아니며 ‘尒斯智王’과 밀접

7) 2014년에 있었던 학술심포지엄 ‘金冠塚과 尒斯智王’에서도 封墳 規模로 볼 때 金冠塚을 王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최병현, 朴光烈에 의해서 제시된 바 있다.

한 關係의 女性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婦人이나 딸, 또는 여동생일 수 있다. 이 경우 金冠塚과 鳳凰臺와의 關係가 주목된다. 이는 濱田耕作·梅原末治(1924), 金龍星(1998), 朴光烈(2014), 金大煥(2014a)이 이미 지적한 것으로 金冠塚을 鳳凰臺의 陪塚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鳳凰臺는 III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新羅 무덤 중에 단일분으로는 가장 큰 무덤으로 麻立干의 陵일 가능성이 큰데 金冠塚이 長徑 45m의 크기의 規模를 갖는다면 鳳凰臺와 거의 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鳳凰臺와 밀접한 인물이 金冠塚에 묻혔다고 볼 수 있으며, ‘尔斯智王’은 鳳凰臺의 被葬者로 麻立干일 가능성이 크게 된다.

2. 被葬者の 性別 檢討

이와 같이 金冠塚 被葬者の 性別 判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序論에서 언급한 것처럼 朝鮮總督府에서 발간한 報告書에 기록된 출토 상황이 지금까지 조사된 다른 무덤의 裝身具 출토 정형과 차이가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耳飾과 垂飾의 고리는 細環과 太環으로 나뉘며 많은 연구자들이 細環耳飾과 大刀의 着裝은 男性, 太環耳飾의 着裝은 女性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垂飾의 主環의 모양도 耳飾과 大刀 着裝으로 분류한 性別과 일치한다. 그러나 金冠塚은 太環耳飾을 하였고 大刀를 着裝하지 않아 女性의 특징을 보이니, 金冠에 부속된 垂飾의 主環은 細環이어서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金冠이 出土된 5건의 무덤을 살펴보면 天馬塚과 金鈴塚에는 細環垂飾에 細環耳飾, 그리고 大刀를 着裝했으며, 瑞鳳塚은 太環垂飾에 太環耳飾을 했다. 皇南大塚 北墳도 太環垂飾(太環耳飾) 3쌍이 金冠 아래쪽에서 출토되었다. 太環垂飾이 있는 경우 大刀는 着裝하지 않았다. 金銅冠을 쓰는 경우도 皇南大塚 南墳은 細環垂飾을 하고 大刀를 차고 있으며, 壺杆塚과 銀鈴塚은 細環垂飾에 細環耳飾을 하고 있다. 결국 金冠塚만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난 것이다.⁸⁾ 이 경우 細環垂飾이 金冠의 부속품으로 發掘되었다는 기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수습 직후 촬영된 것으로 推定되는 사진(그림 4)에도 金冠과 垂飾이 함께 있어 垂飾이 金冠과 함께 출토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림 5>와 같이 太環耳飾이 金冠의 위쪽에서 출토된 도면도 있는 것으로 보아 太

8) 16호(皇吾里) 2·3곽과 4·5곽에서 被葬者 머리 부위에서 太環耳飾 한 쌍과 細環耳飾 한 쌍이 출토되었다. 여기서 검토한 垂飾-耳飾의 쌍과는 다른 사례이다. 李熙濬(2002)은 太環耳飾을 垂飾의 일종으로 보았으나 筆者는 殉葬者の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金鈴塚에서도 被葬者 양 옆에 太環耳飾이 조사된 사례가 있다.

環耳飾의 위치가 당시에도 불명확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性別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耳飾 외에 性別을 나타내는 요소를 찾아 金冠塚 被葬者의 性別 문제를 재검토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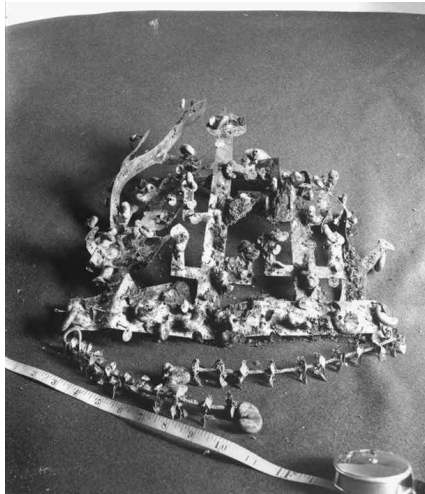


그림 4. 金冠과 垂飾
(發掘 直後 推定/乾板番號 無2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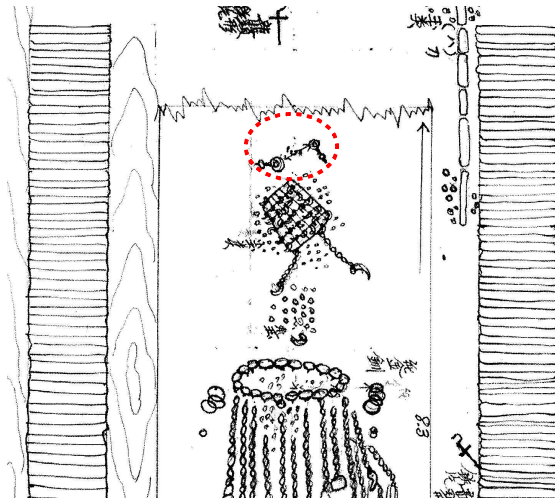


그림 5. 京都大 考古學研究室 所藏 圖面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11)

표 4. 新羅 무덤 被葬者의 性別 推定 研究(尹相惠, 2011: 141)

研究者	發表 年度	性別區分 基準			備考
		南	女	其他	
關野貞, 谷井濟一	1916	大刀(?)	華麗한 耳飾(?)	合葬	普門洞 合葬墳 (普門里 夫婦塚)
梅原末治	1931	環頭大刀 着裝			金鈴塚
齋藤忠	1937	武具類·馬具類 數量, 大刀, 冠帽			皇南里 109號, 皇吾里 14號 등
金載元	1948	大刀	紡錘車		壺杆塚·銀鈴塚
金元龍	1955	大刀			路西里 138號
金元龍	1969	大刀, 馬具類 數量			皇吾里 1號
秦弘燮	1969	大刀	裝身具 數, 小刀 裝飾土器, 紡錘車		皇吾里 33號
金元龍	1973	細環耳飾, 馬具, 大刀	太環耳飾		東洋學 學術會議
尹武炳	1973	大刀, 冠類			東洋學 學術會議

研究者	發表 年度	性別區分 基準			備考
		南	女	其他	
金元龍	1974	細環耳飾	太環耳飾		天馬塚
崔秉鉉	1981	細環耳飾, 大刀, 馬具, 武具	太環耳飾, 紡錘車	大形腰佩	
朴普鉉	1990	細環耳飾, 大刀	太環耳飾		
崔秉鉉	1994	細環耳飾, 鏢頭大刀	太環耳飾, 紡錘車	大形腰佩	皇南大塚 南墳
金龍星	1998	細環耳飾, 大刀	太環耳飾		
李熙濬	2002	細環耳飾, 大刀	太環耳飾		
이준정 등	2008	細環耳飾, 大刀	太環垂飾 慎重	其他 副葬品 正確度 낮음	

新羅 무덤 被葬者の 性別을 推定하는 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발표되었다. <표 4>는 筆者가 정리한 性別 推定 연구사례이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1916년 普門洞 合葬墳(普門里 夫婦塚)과 金鈴塚 發掘報告書에서 大刀를 着裝한 것이 男性을 뜻하는 것으로 推定하였고, 이후 大刀는 男性을 判別하는 가장 重要한 基準이 된다. 齋藤忠(1937)은 馬具와 武具로 被葬者を 男性으로 推定하였고 金載元(1948)은 紡錘車를 女性 判別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金元龍(1973, 1974)은 慶州地域에서 細環耳飾은 男性, 太環耳飾은 女性이 주로 着裝하며 大刀와 鏢子가 출토된 경우도 被葬者が 男性임을 알려준다고 하였다. 이후 耳飾의 형태를 性別 구분의 가장 重要한 기준으로 삼게 된다. 崔秉鉉(1981)은 被葬者が 직접 몸에 着用하고 있었던 것을 강조하여 男性 被葬者は 細環耳飾과 大刀를 着裝하고, 女性 被葬者は 太環耳飾을 着裝하며 馬具나 武器가 상대적으로 적게 副葬된다고 하였다. 耳飾의 종류와 大刀의 着裝여부를 性別 判別의 기준으로 삼는 안은 金龍星(1998), 李熙濬(2002)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 李熙濬은 이에 더해 모든 服飾品을 갖춘 K·L군을 除外한 하위군에서는 頸飾이 太環耳飾과 공반하며 帽冠은 細環耳飾 着裝者에게 副葬됨을 지적하였다.⁹⁾ 결국 細環耳飾과 太環耳飾의 着裝을 기준으로 大刀 着裝 有無를 보완하여 被葬者の 性別을 判別하는 것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耳飾을 除外하면 帽冠, 武具, 馬具, 頸飾이 性別 判別에 효과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副葬品에 초점을 맞춰 出土樣相을 검토하겠다.

9) 帽冠의 副葬이나 着裝이 男性을 의미한다는 견해는 金秉模(2000), 咸舜燮(2012)도 제시한 바 있다.

표 5. 新羅 前期 무덤 副葬品 出土 樣相

연 번	무덤 명칭	原集團 (耳飾)	로지 회귀	細環 垂飾	太環 垂飾	大刀 (着裝)	帽冠	武具				馬 具	帶 冠	頸 飾
								甲冑	鐵鏃	大刀 (副葬)	鐵矛			
1	98호(南墳)	1	1	○		○	○	○	○	○	○	○	○	○
2	155호(天馬塚)	1	1	○		○	○	○	○	○	○	○	●	○
3	127호(金鈴塚)	1	1	○		○	○		○	○	○	○	●	○
4	140호(南 壺杆塚)	1	1	○		○			○	○	○	○	○	○
5	140호(北 銀鈴塚)	1	1	○					○		○	○	○	○
6	138호	1	1	○		○	○		○		○	○		○
7	4호(皇吾里)	1	1	○		X			○	○		○		○
8	16호(1柳 皇吾里)	1	1				○		○			○	○	○
9	味鄒 7區5호	1	1				○		○	○		○	○	
10	149호(仁旺洞)	1	1			○			○		○		○	○
11	142호(路東洞4 玉團塚)	1	1			○	○	○	○	○	○	○		○
12	54호(乙 皇吾里)	1	1			○	○	○	○	○	○			○
13	126호(飾履塚)	1	1			○	○		○	○	○	○		○
14	110호	1	1			○	○		○	○	○	○		○
15	41호(竝삼)	1	1			○	○		○	○	○	○		○
16	鷄林路14호	1	1			○	○		○			○		
17	109호(1柳)	1	1			○	○				○			
18	14호(1柳 南 皇吾里)	1	1			○	○		○		○	○		○
19	16호(4,5柳 皇吾里)	1	1			○	○		○	○	○	○		
20	33호(東柳 皇吾里)	1	1			○	○		○	○		○		○
21	味鄒A3호2柳	1	1			X			○	○	○	○		
22	味鄒C1호	1	1			X			○	○	○	○		
23	味鄒C11호	1	1						?	○	?	○		
24	味鄒A3호1柳	1	1			X			○	○	○	○		○
25	皇南里442-2柳(파괴분)	1	1			○			○		○	○		
26	109호(3, 4柳)	1	1			○			○	○	○	○		
27	皇吾里古墳(南柳1936)	1	1			○			○	○	○			○
28	16호(11,12柳 皇吾里)	1	1						○		○	○		
29	19호(J柳 仁旺洞)	1	1			?			○	○	○	○		
30	19호(K柳 仁旺洞)	1	1			○			○		○	○		
31	味鄒9區A호3柳	1	1			○			○					
32	味鄒9區A호2柳	1	1			○			○	○		○		
33	竝삼C9호	1	1						○		○	○		○
34	普門里古墳(原田)	1	1								○	○		○
35	129호(瑞鳳塚 南墳)	1	1								○	○		○
36	82호(東 皇南里)	1	1			△				○	○	○		○
37	19호(G柳 仁旺洞)	1	1			○					○	○		○

연 번	무덤 명칭	원集團 (耳飾)	로지 회귀	細環 垂飾	太環 垂飾	大刀 (着裝)	帽冠	武具				馬 具	帶 冠	頸 飾
								甲冑	鐵鏃	大刀 (副葬)	鐵矛			
38	16호(23槨 皇吾里)	1	1							○	○	○		
39	味鄒D1호1槨	1	1							○				○
40	16호(9槨 皇吾里)	1	1			X				○	○			
41	味鄒7區7호	1	1			○						○		
42	19호(L槨 仁旺洞)	1	1			○						○		
43	仁旺積石10호	1	*2									○		○
44	皇南里442-4槨(파괴분)	1	1							○		○		
45	98호(北墳)	2	2		○		○		○	○	○	○	●	○
46	129호(瑞鳳塚 北墳)	2	2		○				○			○	●	○
47	皇吾里古墳(1955)	2	2		○	○						○	○	○
48	5호(皇吾里)	2	2		○									○
49	皇吾里54甲	2	2		○							○		○
50	味鄒C4호	2	2		?									○
51	皇吾里古墳(北槨1936)	2	2			X				○	○	○	○	○
52	16호(8,10槨 皇吾里)	2	2								○	○	○	
53	82호(西 皇南里)	2	2								○		○	
54	普門洞合葬墳(積石)	2	2			X△				○		○	○?	
55	14호(2槨 北 皇吾里)	2	*1						○		○	○		○
56	1호(南槨 皇吾里)	2	*1			△			○		○	○		○
57	味鄒C2호	2	2						○			○		
58	33호(西槨 皇吾里)	2	2			X△			○			○		○
59	19호(F槨 仁旺洞)	2	*1							○	○	○		○
60	19호(C槨 仁旺洞)	2	2						○					
61	죽샘C1호	2	2						○					
62	20호(仁旺洞)	2	*1			○						○		
63	19호(E槨 仁旺洞)	2	2									○		
64	味鄒9區A호1槨	2	2			△						○		○
65	味鄒C3호	2	2											○
66	味鄒D1호2槨	2	2											○
67	味鄒5區2호	2	2											
68	味鄒5區8호	2	2											
69	路西里215호	2	2											○
70	16호(6槨 皇吾里)	2	2											○
	128호(金冠塚)	?	1	○			○	○	○	○	○	○	●	○

‘原集團’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1’은 細環耳飾, ‘2’는 太環耳飾 着裝이다.

‘*’는 統計分析에 의해 集團이 다르게 예측 된 경우이다.

‘●’는 金冠을 着裝한 경우이다.

‘大刀着裝’의 ‘X’는 着裝하지 않은 것으로 推定되는 경우이고, ‘△’은 小刀를 着裝한 것이다.

<표 5>는 慶州 內 積石木槨墳 중에 耳飾(垂飾 포함)이 출토된 무덤 71기의 裝身具(帶冠, 帽冠, 頸飾)와 武具, 馬具의 出土樣相을 살펴본 것이다. 耳飾과 頸飾, 垂飾, 大刀는 着裝品 기준이며, 武具 중에 大刀는 순장자의 것으로 보이는 것은 除外하고 副葬品에 한정하였다. 帽冠은 금속뿐만 아니라 白樺樹皮製도 포함하였으며 咸舜燮(1999)과 李熙濬(2002)의 견해와 같이 冠飾만 있는 경우도 帽冠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였다. 帽冠은 거의 着裝되지 않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武具는 農工具로 볼 수 있는 鎌이나 斧 등은 除外하였고 甲冑(팔뚝가리개 포함), 鐵鏃 및 大刀와 鐵矛만을 정리하였다. 鐵鏃에는 盛矢具가 출토된 경우도 포함하였다.¹⁰⁾ 馬具는 재갈, 鐙子, 鞍橋, 杏葉, 雲珠가 속하는데 세트로 副葬되므로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았다.

표 6. 集團간 副葬品 출토 양상(괄호는 무덤 수)

	垂飾		大刀 (着裝)	帽冠	帶冠	頸飾	甲冑	鐵鏃· 盛矢具	大刀 (副葬)	鐵矛	馬具
	細環	太環									
1群(細環耳飾) 男性-44기	15.9% (7)	0.0% (0)	56.8% (25)	36.4% (16)	18.2% (8)	56.8% (25)	9.1% (4)	70.5% (31)	59.1% (26)	70.5% (31)	84.1% (37)
2群(太環耳飾) 女性-26기	0.0% (0)	19.2% (5)	7.7% (2)	3.8% (1)	26.9% (7)	61.5% (16)	0.0% (0)	30.8% (8)	15.4% (4)	26.9% (7)	57.7% (15)

<표 6>은 <표 5>에서 金冠塚을 除外하고 정리한 것이다. 細環耳飾(1군-男性)과 太環耳飾(2군-女性)을 着裝한 무덤을 나누어 유물의 出土樣相을 살펴보았다. 金冠塚을 除外하면 細環垂飾은 細環耳飾 着裝者(1군)가, 太環垂飾은 太環耳飾 着裝者(2군)가 着裝하였다. 被葬者가 大刀를 着裝한 경우는 1군은 56.8%인데 비해 2군은 皇吾里古墳(1955년 發掘)과 20호(仁旺洞), 단 두 사례(7.7%)만이 확인되었다. 帽冠도 1군 무덤 중 16기에서 發掘되었는데 2군에서는 98호 北墳에서만 發掘되었다.

10) 이 중에 李熙濬이 제시한 표(2002: 70~71)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金鈴塚: 太環耳飾이 아니고 細環垂飾(報告書 도판 62)과 細環耳飾(도판 63-2)을 着裝하였다.
- 飾履塚: 鈴帶 아래, 그리고 副葬部에서 帽冠이 출토되었다.
- 138호: 報告書의 상태 설명으로 보아 '도판 50b'의 나무껍질을 白樺樹皮製 帽冠으로 推定하였다.
- 16호 4·5곽: 遺骸部에서 白樺樹皮製 帽冠이 출토되었다.
- 16호 1곽: 은제 鈴帶 위쪽에 곡옥이 출토되어 頸飾을 着裝한 것으로 보이며 머리 쪽에서 白樺樹皮製 帽冠이 출토되었다.
- 19호(仁旺洞) G곽: 유리옥이 가슴부위에서 집중 출토되어 頸飾을 着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武具를 보면 甲冑는 사례가 매우 적는데 1군 무덤에서 4기(9.1%)가 조사되었으나 2군 무덤에서는 조사사례가 없다. 鐵鏃(盛矢具)은 1군 무덤 중 약 70%, 2군 무덤 중에서 31% 출토되었다. 大刀를 副葬한 경우는 1군은 59%에 달하나 2군은 15%에 불과하였다. 鐵矛는 1군에서 약 70%의 무덤에서 확인되었고 2군은 27%가 확인되어 鐵鏃(盛矢具)의 양상과 유사하였다. 馬具는 1군에서는 84%, 2군에서도 58%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이상이 2군보다 1군에서 출토 비율이 높은 것이다. 특히 細環垂飾, 大刀(着裝), 帽冠, 甲冑가 1군에 집중되는 점이 주목된다. 武具도 2군에 비해 1군 출토비율이 높다. 馬具는 2군보다 1군에서 많이 출토되었으나 사례가 양쪽 모두 많다. 帶冠은 2군에서 약간 많이 출토되었다. 頸飾은 낮은 위계에서 性別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나(李熙濬 2002) 1, 2군 모두 60%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¹¹⁾

이러한 검토 결과는 帽冠과 甲冑 및 武具가 출토된 金冠塚의 유물 出土 樣相이 1군(男性)에 가깝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반론도 가능하다. 즉 1군과 2군을 구별하는 강력한 기준인 大刀의 着裝이 金冠塚 被葬者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전히 2군이라 주장할 근거가 있다. 또한 金冠塚이 ‘통합복식군’(李熙濬의 ‘K·L군’)에 속하고 있어 비록 2군에 속하지만 1군의 性格을 가지는 유물도 副葬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98호(皇南大塚) 北墳도 2군이지만 1군에서 주로 보이는 帽冠과 武具, 馬具가 모두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男性과 관련한 요소가 많다고 하여 金冠塚을 1군에 속한다고 보기에는 주저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즉 여러 副葬品 중에 개별 연구자가 어떤 요소에 더 무게를 두어 평가하느냐에 따라 성별을 달리 推定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70기의 무덤에서 출토된 여러 종류의 副葬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統計技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金冠塚의 性別을 統計的으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

3. 統計分析

이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과 判別分析(Discriminant Analysis)이다. 여기서는 裝身具와 副葬品 출토 상황(獨立變數)

11) Chi-square 검증을 한 결과도 다르지 않다. 성별에 따라 각 副葬品의 出土樣相이 구분되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大刀(着裝)’, ‘帽冠’, ‘鐵鏃(盛矢具)’, ‘大刀(副葬)’, ‘鐵矛’, ‘馬具’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구분되나, ‘帶冠’과 ‘頸飾’은 차이가 없었다. ‘馬具’의 경우 비록 유의미하다고 나왔으나 설명력(람다 값)은 높지 않았다.

을 모두 ‘有/無’로 범주화 하여 정리했는데, 判別分析은 獨立變數가 이러한 명목척도로 측정된 경우 推定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견해가 있다(이학식·임지훈 2013). 따라서 獨立變數에 제한이 없는 로지스틱 회귀분석만을 진행하고자 한다.¹²⁾ 특히,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從屬變數가 二項形(binary-type)인 경우 유용하므로 이번 분석과 같이 1, 2군으로 나눈 경우에 適合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두 개의 集團에 속한 個體들이 가진 變數(獨立變數)의 조합을 분석해서 集團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獨立變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지의 個體가 어떤 集團에 속할지 예측할 수 있다. 이번 사례에 대입해서 설명하면 細環耳飾 着裝群(1군;男性)과 太環耳飾 着裝群(2군;女性)에 속한 70기의 개별 무덤들을 裝身具(垂飾, 帶冠, 帽冠, 頸飾)와 武具, 馬具의 出土 樣相(獨立變數)을 검토하여 어떤 요소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耳飾을 着裝했는지 모른다고 假定한 金冠塚의 세 變數를 이 분석에 대입하여 金冠塚가 어떤 集團에 속할지 예측할 수 있다.

먼저 어떤 變數가 集團 判別에 크게 기여하는가를 살펴보자. <표 7>의 ‘B’값이 크면 2군에 속할 確率이 높아지고 낮으면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¹³⁾ 즉 太環垂飾, 甲冑, 帶冠이 2군으로 예측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變數이고,¹⁴⁾ 帽冠, 細環垂飾, 大刀(着裝), 大刀(副葬), 鐵矛가 1군으로 분류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變數이다. 특히 細環·太環垂飾과 帽冠의 절댓값이 높아 이들이 확인되면 集團 결정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變數의 有意性(Sig.)도 함께 보아야 하며 大刀(着裝), 大刀(副葬), 帶冠이 有意的으로 나타났는데, 이 變數 외에 나머지는 다른 獨立變數와 있을 때 분류예측력이 낮다는 의미이다. Exp(B) 값은 ‘1’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女性으로 분류할 確率을 높이고 이보다 낮으면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이번 분석에서 有意的인 속성인 大刀(着裝)의 경우 한 단계 증가할 때 사건이 발생할-2군에 속할 確率은 0.02배가 줄어들며(1보다 낮으므로) 男性으로 判別할 確率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는 大刀(着裝), 大刀(副葬)은 女性으로 분류될 確率을 낮추고 帶冠은 높이는 變數라고 해석된다.

12) 심포지엄 발표문에서 判別分析에 대한 결과를 소개한 바 있는데 82.9%의 正確度を 보여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더욱 높은 正確度を 보여주고 논지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어, 적용에 논란이 있는 判別분석을 除外하였다.

13)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集團간 구분에 사건이 발생할 確率을 사용한다.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2군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군으로 분류된다.

14) 甲冑가 2군과 관련된 變數로 분류된 것은 의문인데 출토사례가 4건 뿐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推定된다.

표 7. 방정식에 포함된 變數

	B	S.E.	Wald	df	Sig.	Exp(B)
太環垂飾	41.927	14789.829	0.000	1	0.998	1.62E+18
甲冑	10.366	19491.975	0.000	1	1.000	31774.912
帶冠	3.796	1.766	4.623	1	0.032	44.536
頸飾	0.148	1.103	0.018	1	0.893	1.159
鐵鏃·盛矢具	-0.020	1.111	0.000	1	0.986	0.981
馬具	-0.070	1.170	0.004	1	0.953	0.933
鐵矛	-2.404	1.349	3.174	1	0.075	0.090
大刀(副葬)	-2.762	1.211	5.204	1	0.023	0.063
大刀(着裝)	-3.906	1.470	7.064	1	0.008	0.020
細環垂飾	-22.287	11765.675	0.000	1	0.998	0.000
帽冠	-23.761	7254.963	0.000	1	0.997	0.000
Constant	2.073	1.260	2.707	1	0.100	7.951

표 8. 분류 正確度

		예측치		
		性別		Percentage Correct
		1	2	
Step 1	性別	1 43	1	97.7
		2 4	22	84.6
	綜合 %			92.9

a. The cut value is .500

<표 8>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集團을 判別했을 때의 正確度を 제시하였다. 전체 1군에 속하는 무덤 44기 중 이 분석에 의해 1군으로 예측되는 무덤은 43기로 97.7%의 正確度を 보이며,¹⁵⁾ 2군에 속하는 무덤은 26기 중에 22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84.6%

를 기록하였다. 종합하면 92.9%로 높은 正確度を 보여줬다. 즉 어떤 새로운 무덤을 이 분석을 통해 예측했을 때, 그 예측의 正確도가 92.9%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金冠塚은 어떻게 될까? 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金冠塚의 變數를 넣은 결과 金冠塚은 1군으로 분류되었다. 즉 大刀를 着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變數들로 인해 1군, 즉 男性(細環耳飾 着裝)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참고로 98호 北墳은 女性 무덤으로 예측되었다. 98호 北墳과 金冠塚은 垂飾의 종류와 甲冑 副葬에서 차이가 있지만 大刀를 着裝하지 않은 점은 같은데도 서로 다른 集團으로 判別된 것이다.

15) 참고로 심포지엄에서는 44기 중 1군으로 예측되는 무덤은 40기로 발표하였으나, 이 글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味鄒C11호, 쪽샘C9호, 皇南里442-4槨(과괴분)에서 武器가 출토된 것을 파악하여 이를 수정한 결과 이들이 모두 1군으로 분류되었다.

V. 結 語

분석 결과 金冠塚의 被葬者는 男性(細環耳飾 着裝)으로 예측하는 것이 統計적으로 더 適合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糸斯智王’이 바로 金冠塚의 被葬者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金冠塚에서 발견된 ‘糸斯智王’ 관련 銘文이 새겨진 大刀는 총 세 자루이다. 朝鮮總督府의 報告書에 東쪽 副葬部에서 수습된 것으로 기록된 金銅製 環頭大刀의 칼집 끝장식과 상단에 각각 ‘糸斯智王’과 이의 줄임말로 보이는 ‘糸’가 새겨져 있고, 棺의 左側에서 발견되었다고 기록된 金銀製 環頭大刀 칼집 끝장식에 ‘糸’가 새겨져 있었다(金大煥 2014b). 또한, 2015년 發掘에서 ‘糸斯智王刀’가 새겨진 칼집 끝장식이 추가로 發掘되었는데 이는 棺의 右側(南쪽)에 놓였던 環頭大刀의 것으로 보인다. 朝鮮總督府에서 발간한 金冠塚 報告書에 의하면 허리춤에 찬 大刀는 없지만 棺의 左右側에 ‘糸斯智王刀’와 ‘糸’를 새긴 大刀가 놓였던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만약 被葬者가 女子라면 ‘糸斯智王’은 被葬者와 일치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男子라면 棺 양 측에 놓인 大刀는 被葬者의 所有物일 가능성이 크며, 그 칼에 새긴 이름은 被葬者의 이름으로 推定하는 것이 合理的이다.¹⁶⁾ 아울러 같은 이름을 새긴 여러 자루의 칼이 한 무덤에 副葬된 점도 被葬者를 所有者로 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糸斯智王’은 바로 金冠塚의 被葬者와 同一 人物로 推定할 수 있다. 그러나 II장에서 본 것처럼 金冠塚 封墳의 規模가 3군에 속해 麻立干의 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糸斯智王’은 奈勿王부터 智證王까지 6명의 麻立干 중에 한 명이라 보기 어렵다. 이 경우 ‘糸斯智王’은 冷水里碑에 나오는 ‘七王’과 같은 6部 最高位層인 干支級의 地位를 가진 사람(葛文王 포함)일 수 있다.¹⁷⁾

한편, 月城北古墳群에 6部の 모든 首長級 인물이 묻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麻立干의 陵으로 보이는 1군과 2군의 超大型 무덤을 除外하고 현재 封墳이 남아 있는 지름 22.5m 이상의 4, 5군의 무덤이 30여기가 넘는 것으로 볼 때, 이 墓域에 묻힌 인물

16) 筆者는 太環耳飾의 着裝與否와 마찬가지로 1921년 金冠塚의 수습자가 과연 大刀가 被葬者 허리춤에 있었는지, 棺의 양옆에 놓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심을 가진다. 男性인 被葬者가 이 大刀를 着裝하였다면 被葬者와 ‘糸斯智王’을 동일인으로 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17) 金在弘(2014)은 冷水里碑에 비록 ‘七王’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固有名詞인 王號로서 ‘○○王’을 지칭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糸斯智王’은 新羅 국왕(麻立干)을 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筆者는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기는 어려우나, 金在弘이 설명한 바와 같이 530년대에 金石文에서 呼稱이 ‘-王’에서 ‘-太王’으로 바뀌는 것처럼, 金冠塚은 冷水里碑 보다 조성 시기가 빠르므로 冷水里碑 이전시기에는 6部の 首長級 인물을 ‘○○王’으로 지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을 麻立干을 배출한 喙部和 沙喙部に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 시기 新羅의 지배체제와 관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6部가 支配集團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주변 集團을 共同으로 支配했다(전덕재 2003)는 점을 고려하면 喙部 및 沙喙部和 나머지 6部 首長級 인물이 墓域을 공유함으로써 6部 集團 간의 結束을 높일 수 있으므로 오히려 가능성이 크다. 다만 金冠塚은 麻立干的 무덤으로 推定되는 鳳凰臺의 陪塚으로 볼 수 있으므로 金冠塚의 被葬者인 ‘尔斯智王’은 麻立干과 姻戚關係에 있는 喙部和 沙喙部 출신의 干支級 地位의 人物로 推定된다.

※ 이 글은 2016년 金冠塚·瑞鳳塚 再發掘 기념 학술심포지엄 ‘麻立干的 記念物: 積石木槨墳’에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심포지엄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朴光烈(聖林文化財研究院), 金龍星(한빛文化財研究院), 李熙濬(慶北大學校), 金在弘(國民大學校), 咸舜燮(國立中央博物館) 선생님과 統計技法과 관련해 조언을 해준 金壯錫 선생님(서울大學校)께 감사드린다.

參考文獻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11, 『日帝強占期 新羅古墳 發掘調査 關聯資料集』.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14, 『慶州 倭冢地區 新羅古墳遺蹟Ⅳ』-A·C~F地區 分布調査 報告書.
- 國立中央博物館, 2016, 『慶州 金冠塚(遺構篇)』.
- 김대환, 2014a, 「訖斯智王」, 『金冠塚과 訖斯智王』國立中央博物館 테마전, 國立中央博物館.
- 김대환, 2014b, 「日帝強占期 金冠塚의 調査와 意義」, 『考古學誌』第20輯, 國立中央博物館.
- 金秉模, 2000, 「금관의 착용인」, 『황남대총의 재조명』,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 김석우 외, 2007, 「판별분석」,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SPSS WIN 12.0 활용의 실제』, 교육과학사.
- 金龍星, 1998,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大邱·慶山의 例』(춘추각).
- 金龍星, 2010, 「新羅 麻立干時期的 王陵 皇南大塚 南墳」,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 國立中央博物館.
- 金元龍, 1955, 『慶州 路西里 雙床塚.馬塚.一三八號墳 調査報告』, 國立博物館.
- 金元龍, 1969, 「皇吾里第一號墳」, 『慶州 皇吾里第一, 三三號, 皇南里第一五一號古墳發掘調査 報告』, 文化公報部.
- 金元龍, 1973, 『新羅古墳의 몇 가지 特性』, 東洋學國際學術會議.
- 金元龍, 1974, 「考古學的 綜合考察」, 『天馬塚』,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 金載元, 1947, 『壺杆塚과 銀鈴塚』, 國立博物館.
- 김재홍, 2014, 「訖斯智王명 大刀와 金冠塚의 주인공」, 『考古學誌』第20輯, 國立中央博物館.
- 박광열, 2014, 「新羅 積石木槨墳의 研究와 金冠塚」, 『考古學誌』第20輯, 國立中央博物館.
- 朴普鉉, 1990, 「積石木槨墳에 보이는 多葬墓」, 『大邱史學』39.
- 尹武炳, 1973, 『韓國古代文化의 特性座談會』, 東洋學國際學術會議.
- 尹相惠, 2011, 「考察-被葬者의 性格」, 『慶州 普門洞 合葬墳-舊 慶州 普門里 夫婦塚』, 國立慶州博物館.
- 尹相惠, 2014, 「봉토 외형으로 본 신라 전·중기의 왕릉 추정」, 『韓國考古學報』第93輯, 한국고고학회.
- 이준정·하대룡 외, 2008, 「경산 임당유적 고총군 피장자 집단의 성격 연구 - 출토 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第68輯.
- 이학식·임지훈, 2013, 「판별분석」, 『SPSS 20.0 매뉴얼』(집현재).
- 李熙濬, 2002, 「4~5世紀 新羅 古墳 被葬者의 服飾品 着裝 定型」, 『韓國考古學報』第47輯.
- 전덕재, 2003, 「신라의 왕경과 지방, 넘을 수 없는 경계」, 『歷史批評』65.
- 秦弘燮, 1969, 「皇吾里第三三號墳」, 『慶州 皇吾里第一, 三三號, 皇南里第一五一號古墳發掘調査 報告』, 文化公報部.

崔秉鉉, 1981, 「古新羅 積石木槨墳研究 下-墓型과 그 性格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32.

崔秉鉉, 1994, 「考古學的 綜合考察」, 『皇南大塚(南墳)』(本文),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崔秉鉉, 2014, 「신라 적석목곽분과 마립간시기 왕릉 연구의 현황」, 『금관총과 이사지왕』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술 심포지엄, 國立中央博物館.

咸舜燮, 2012, 『新羅 樹枝形帶冠의 展開過程 研究』, 慶北大學校 文學碩士學位論文.

關野貞·谷井濟一, 1916, 『朝鮮古蹟圖譜解説』三, 朝鮮總督府.

梅原末治, 1932,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本文」, 『大正十三年度 古蹟調査略報告』第1冊.

濱田耕作·梅原末治, 1924, 『慶州金冠塚と其遺寶』 本文上冊, 古蹟調査特別報告 第3冊, 朝鮮總督府.

小泉顯夫, 1927, 「瑞鳳塚の發掘」, 『史學雜誌』 38-1.

齋藤忠, 1937, 「慶州皇南里第百九號墳·皇吾里第十四號墳調査報告」, 『昭和九年度 古蹟調査報告』 第一冊, 朝鮮總督府.

<로지스틱 회귀분석 관련 참고수치>

Omnibus Tests of Model Coefficients

		Chi-square	df	Sig.
Step 1	Step	60.805	11	.000
	Block	60.805	11	.000
	Model	60.805	11	.000

Hosmer and Lemeshow Test

Step	Chi-square	df	Sig.
1	7.715	8	.462

Model Summary

Step	-2 Log likelihood	Cox & Snell R Square	Nagelkerke R Square
1	31.554a	0.580	0.792

a. Estimation terminated at iteration number 20 because maximum iterations has been reached.

Final solution cannot be found.

【Abstract】

A Re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 of the Buried at Geumgwanchong Tomb

Yoon Sang-deok

Geumgwanchong Tomb is the tomb where the gold crown was first discovered in Korea; regrettably, however, the tomb was excavated by non-professionals, and the excavation was finished in just four days. In 2015,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re-excavated the tomb to understand its structure and retrieved the fragments of a sword with the Chinese inscription *Isajiwangdo* (King Isaji's Sword). But this gave rise to major controversies concerning the buried; thus necessitating a re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 of the buried.

First, this writer estimated the scale of Geumgwanchong Tomb and found that only the stone mound remained but not the retaining stone slabs; therefore, compared with the other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the major axis of the slabs of Geumgwanchong Tomb is estimated to be 45 meters long. Based on existing research, the scale of the tomb cannot be that of *Maripgan* (Silla king). The gender of the buried is a crucial factor in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ied at Geumgwanchong Tomb and King Isaji.

According to a past report made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arrings with Thick Hollow Rings symbolizing women were worn on the body, but this writer found it non-trustworthy and consequently reexamined the gender issue excluding the earrings. In other words, this writer analyzed the condition of excavated funerary objects representing gender, except ear ornament, found in 71 major tombs from the same perio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Headgear, Pendant Ornament, Crown, Necklaces, Sword (worn), Armor and Helmet, Iron Arrowhead, Sword (buried), Iron Spear, and Horse Riding Gear.

As a result, it is statistically suitable to estimate that the buried of Geumgwanchong Tomb was dressed with Earrings with Thin Hollow Rings that belonged to men. From the excavation of the Sword inscribed with "King Isaji's Sword," the buried at Geumgwanchong Tomb is estimated to be none other than King Isaji himself. The scale of the tomb is hardly that of the tomb of a Silla King; thus, King Isaji cannot be a king of the Silla Dynasty. Conclusively, King Isaji is estimated to be a top figure of the six *bu* (political divisions), just like the "Seven Kings" mentioned in the Silla Monument in Naengsu-ri, Pohang. Specifically, considering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the nearby Bonghwangdae Tomb, this writer estimates that the buried was a person of Hwe *bu* and Sahwe *bu* related to the king with Ganji-rank as political status.

Key words : Geungwanchong Tomb, King Isaji, Scale of the tomb, Earrings with Thin Hollow Rings, Crown, Logistic Regression, Six Bu, Ganji

‘金冠塚 被葬者の 性格 再考’에 대한 討論文

朴 光 烈*

金冠塚은 日帝強占期인 1921年 10월에 10여 日 간 收拾 發掘調査를 하여 金冠을 비롯하여 수많은 副葬品을 收拾하였다. 이후 관련 遺物들이 國立博物館에 上설 혹은 특별전시를 통하여 알려졌으나, 2013年 金冠塚 出土 環頭大刀를 보존처리 하던 과정에서 ‘尙斯智王’ 銘文이 확인되어 學界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에 國立中央博物館에서는 ‘尙斯智王’의 왕호의 성격과 金冠塚 被葬者 규명을 위하여 2014年 7월에 麻立干期 金冠塚의 성격, ‘尙斯智王’과 신라문자자료, ‘尙斯智王’과 金冠塚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여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2015年 2월부터 日帝強占期 調査에 대한 정리의 일환으로 金冠塚을 再發掘을 실시한 결과, 地上式 積石木槨墳의 封土 築造技法, 積石部の 구조와 木架構造, 二重槨의 木槨 構造, 耳飾을 비롯한 副葬品 특히 ‘尙斯智王刀’ 大刀를 확인하는 등 學界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이 논문은 發掘調査의 成果를 바탕으로 學術大會에서 거론되지 않았거나 미진하게 다루어진 問題點을 중심으로 規模를 통한 麻立干期 무덤 중 金冠塚의 位階, 외형을 통한 變化 過程과 王陵의 規模와 金冠塚의 位置, 出土 遺物의 分析 結果에 의한 被葬者の 性別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 發表文의 논지에 대하여 討論者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發表者가 그 동안 新羅考古學 研究에 매진한 결과물을 볼 때, 넓은 안목과 해석에 이의가 없다. 또한 統計資料를 통한 분석기법 및 여러 가지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검토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討論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일부 이해하기 어렵거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한다.

* 聖林文化財研究院

1. 金冠塚의 규모는 再發掘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護石이나 封土 외곽선이라고 추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發掘調査 약보고서에 의하면 北西쪽 封土 끝 부분의 곡물을 이용해 복원한 결과 직경이 46m로 추정하였다. 發表者는 현재까지 조사된 積石木槨墳의 積石部와 護石의 장축 길이의 비가 정형성이 있어 대체로 護石의 길이는 積石部 길이의 두 배이므로 약 45m로 보았고 鳳凰臺에 접했다고 판단하였다. 規模에 대하여 討論者도 곡물을 이용하여 복원한 결과 43m로 추정되므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金冠塚 報告書를 보면 1912년 이전에는 비록 民家에 일부 파괴가 이루어졌지만 道路가 새로 나면서 鳳凰臺와 이격되었다. 그 이전에는 읍내에서 南쪽으로 나갈 때 조금 올라갔다가 南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으로 볼 때, 鳳凰臺와 連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金冠塚이 鳳凰臺의 連接墳으로 그 성격을 陪塚으로 보는 것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金冠塚의 外形을 통하여 성격을 규명한 부분은 發表者도 지적하였듯이 發掘되지 않은 봉토분의 外形을 통한 研究는 변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위험성이 있으나, 護石의 노출이나 비노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護石의 장축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총 78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6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I군은 직경 65m이상의 超大型으로 125호분(鳳凰臺), 98호(皇南大塚) 南墳·北墳, 130호분(西鳳凰臺), II군은 47.5m~65m 미만으로 119호분(48.9m)에서 90호 북분(56.5m), III군은 32.5m 이상, 47.5m 미만으로 총 22기, IV군은 32.5m, V군은 22.5m, VI군은 12.5m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전제조건을 세우고 논지를 전개하였는데, 첫째, 新羅 무덤의 평면형은 橢圓形에서 圓形으로 변하며, 둘째, 新羅의 王陵은 후대로 갈수록 크기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前期 무덤 중 가장 큰 무덤 8기(I·II군)를 王(妃)陵의 후보로 大型 合葬墳 3기(98호 皇南大塚, 90호, 134호), 超大型 무덤인 125호(鳳凰臺), 130호(西鳳凰臺), 그리고 106호(傳 味鄒王陵)·105호를 유력한 王(妃)陵으로 보았다. 만약 125호분과 130호분 중에 王妃陵이 있다면 차순위에서 1기의 王陵을 추가로 찾아야 하며 그 후보로 119호분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본다면 비록 金冠이 출토되었다 하여도 金冠塚·天馬塚·瑞鳳塚·金鈴塚은 왕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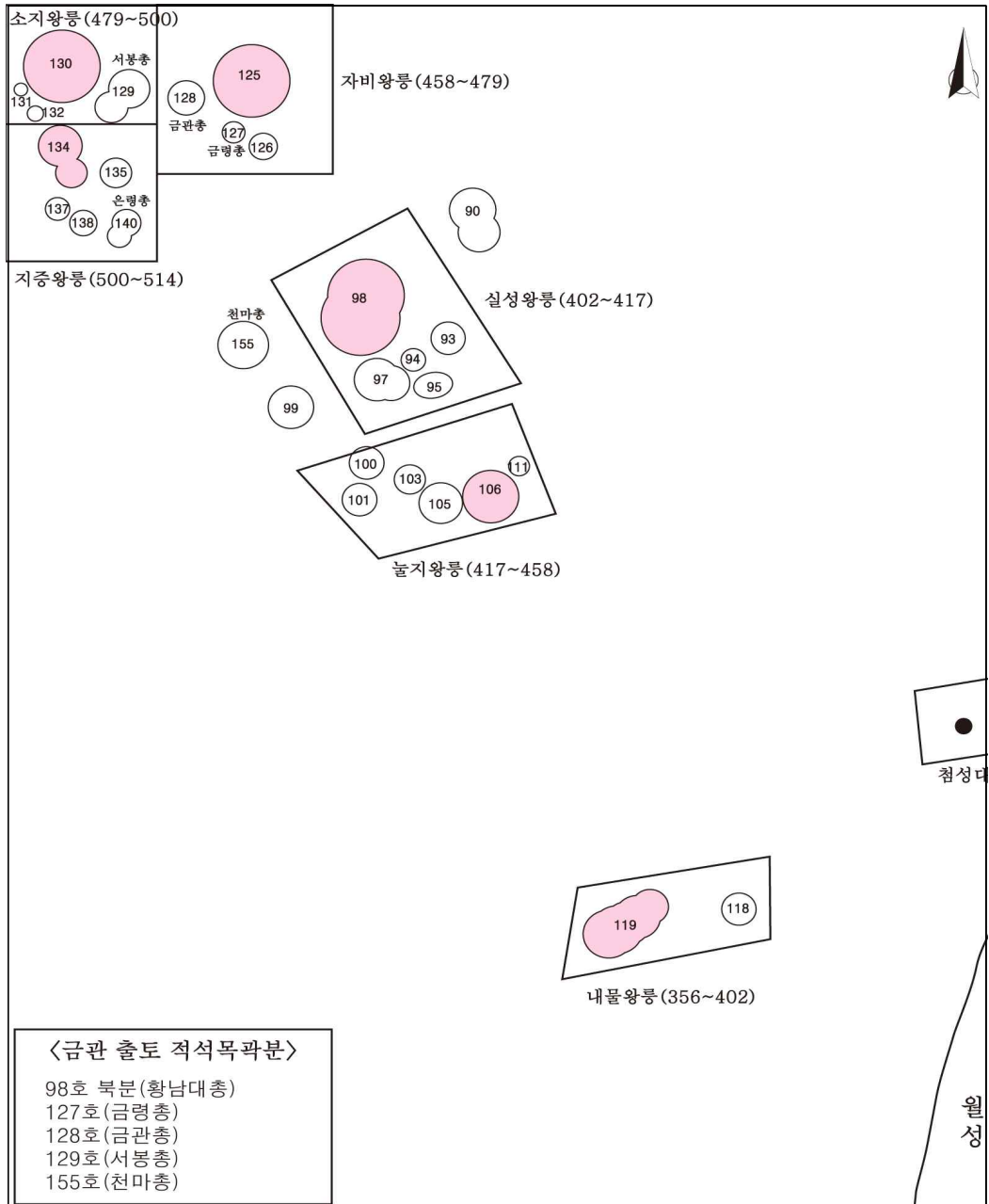


그림 1. 麻立干期 王陵 비정과 陪塚 추정도

發表者의 분석결과에 規模에 의한 王(妃)릉 비정에 동의를 표하지만 일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즉 麻立干期 積石木槨墳의 축조는 月城을 기준으로 크게 I 군은 中 小型墳이 주축을 이루는 北쪽 황토지대로 분포하며 차츰 西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성

이 있다. II군은 119호를 시점으로 西北방향으로 진행되는 中大型墳이 조성되는 것으로 134호 표형분에서 종료된다. 이것은 결국 II군이 麻立干期 王(妃)陵의 집단 묘역으로 생각되며, 大型墳 주위를 포진하고 있는 中小型墳은 陪塚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II군에서 1군은 119호, 2군은 106호(傳 味鄒王陵), 3군은 98호 남분(皇南大塚), 4군은 125호(鳳凰臺), 5군은 130호(西鳳凰臺), 6군은 134호로 분류된다. 특히 이 군들은 시간성이 반영되는 추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西쪽에 마지막으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134호 주변에 石室墳이 배치되거나 6세기 2/4분기로 편년되는 壺杆塚 등에 위치하고 이후 서천을 건너 선도산으로 王陵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規模에 의한 혹은 金冠에 의한 王陵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조성 추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發表者の 견해를 부탁드린다.

3. 被葬者の 성별에 대하여 耳飾과 垂飾은 細環과 太環으로 나뉘며 많은 연구자들이 細環耳飾과 大刀의 착장은 남성, 太環耳飾은 여성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垂飾의 주환의 모양도 이식과 大刀 착장으로 분류한 성별과 일치한다. 그러나 金冠塚은 太環耳飾을 하였고 大刀를 착장하지 않아 여성의 특징을 보이나, 金冠에 부착된 垂飾의 주환은 細環이어서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冠帽와 甲冑 및 武具가 출토된 金冠塚의 遺物 出土 맥락이 남성에 가깝다고 설명할 수 있다. 판별분석 결과로 볼 때도 金冠塚은 大刀를 着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변수들로 인해 남성으로 예측하였고 비교 자료로 98호 北墳은 여성 무덤으로 판단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무덤 44기 중 판별분석에 의해 남성으로 예측되는 무덤은 40기로 90.9%의 정확도를 보이며, 여성에 속하는 무덤은 26기 중에 22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84.6%를 보였다. 결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金冠塚의 변수를 넣은 결과 판별분석과 마찬가지로 남성으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 金冠塚의 被葬者は 남성으로 예측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發表者の 이러한 통계적 분석은 被葬者の 성격을 일반화 하는데 굉장히 유의한 결과치 이지만 金冠塚의 경우 정확한 도면이 아니어서 문제가 좀 있지만 착장유물 중 大刀가 없어 통상적으로 여성의 무덤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討論者は 古墳 出土遺物の 성별 판단은 크게 1차로 着裝遺物を 중심으로 남성은 大刀와 冠帽의 착장, 2차로 부장례에 부장된 大刀·盛矢具·甲冑·완 등의 무구류, 3차로 마구류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 기준으로 볼 때, 金冠塚의 被葬者は

성인 남성으로 추정된다. 물론 여성도 이와 같은 유물을 부장할 수 있지만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기준이나 발표문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 통용되는 出字形 金冠 및 太鐙과 細鐙耳飾의 착용여부를 남녀 성별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데 이에 대한 發表者의 생각은 어떤지?

4. 發表者는 金冠塚의 주인공을 남성으로 예측하여 ‘尒斯智王’은 바로 金冠塚의 被葬者와 동일 인물로 추정하였으나, 封墳의 규모가 Ⅲ군에 속하기 때문에 麻立干의 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尒斯智王’은 내물왕부터 지증왕까지 6명의 麻立干 중에 한 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결국 ‘尒斯智王’은 냉수리비에 나오는 ‘七王’과 같은 6부의 최고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명문 環頭大刀와 ‘尒斯智王’의 관계는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銘文刀의 주인공은 ‘尒斯智王’이 분명하나 被葬者와 동일한 인물이라 할 수 없고 특정 王을 지칭하지 않았으나 新羅國王의 이름으로 본 견해, ‘尒斯智王’이 지도로왕대 초기에 상장례가 이루어진 인물로 볼 때 시기적으로 寐錦王이나 葛文王일 가능성이 있어 21대 炤知王(479~500)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討論者는 金冠塚이 麻立干期の 王陵 축조 방향성을 고려할 때, 비록 非考古學的이라 비판을 받더라도 金冠塚은 20대 慈悲王陵(458~479)으로 추정되는 鳳凰臺의 陪塚으로 보았다. 즉 陪塚인 金冠塚은 主塚인 鳳凰臺를 國王으로 볼 때, 慈悲王의 夫人·寵臣·兄弟姊妹·丈人과 丈母 등이 그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陪塚 관계가 성립되어야 金冠이 출토된 金鈴塚이나 화려한 신발이 출토된 飾履塚이 이해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金冠=王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으며, 陪塚으로 조영될 수 있는 구성원 중 6部 首長을 비롯한 寵臣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金冠을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鳳凰臺의 陪塚인 金冠塚의 塚主는 성인 남성으로 葛文王이 그 후보로 유력하고 金鈴塚의 寵臣는 王妃陵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發表者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